

SOC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604명)을 대상으로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3범주 및 4범주의 애착척도와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IPPA가 애착측정도구로 사용되었고, SOC 전략은 Baltes 등(1999)이 개발한 SOC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강제선택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SOC 질문지의 신뢰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계산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질문지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SOC 질문지는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척도로 볼 수 있었고,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은 불안정한 애착양식 집단보다 SOC 질문지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개인의 SOC 전략은 애착양식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최적화와 보상요인에만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보상요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어 어머니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애착이 SOC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의 가정도 확인될 수 있었다.

주요어: 애착, SOC 전략, 선택, 최적화, 보상

SOC란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들로서 발달적 조절의 세가지 중심적 과정을 의미한다. P. Baltes와 M. Baltes (1990)는 사람들이 개인적 발달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SOC이론 혹은 보상을 갖는 선택적 최적화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성공적 발달 혹은 적응적 발달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서 획득의 최대화와 상실의 최소화를 적응적 발달로 가정하고 이를위해 선택, 최적화 그리고 보상의 발달적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들은 발달적 조절의 이 세가지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OC의 각 과정들은 인생관리전략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Lerner 등, 2001).

Freund와 Baltes(2002)에 의하면, 선택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위계를 구성하며 개인이 설정한 목표에 어느 정도로 헌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각 개인은 능력이나 스테미나, 시간,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선택은 특정한 기능영역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발달적 방향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선택을 의도적 선택(elective selection, ES)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loss-based selection, LBS)으로 구분하였다. 전자가 개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순수하게 자신의 소망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선택이라면, 후자는 목표관련적 수단을 상실했을 때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개인의 목표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수반한다. 또한 최적화란 선택한 영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관련적 수단이나 자원을 획득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선택한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능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관련적 기술을 획득하고 훈련하며 계속해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성취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편 보상은 구체적인 목표관련적 수단들이 더 이상 활용가능하지 않을 때 주어진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안적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조건의 변화로 자원들이 변화함으로써,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단이 요구될 때나 생물학적 노화와 연합된 가소성의 감소와 인생후기에 다양한 수단들의 상실

이 일어날 때 보상이 요구된다. 인간발달은 전생애 동안 성장과 감퇴를 포함하는 중다방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SOC모델은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퇴와 상실에 직면하여 개인의 기능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역점두어 다룬다.

실제로 선택, 최적화 그리고 보상과정은 각각 목표선택, 목표추구 그리고 목표유지/변경의 과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SOC 전략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며 실패나 상실이 일어날 때 기존의 목표를 유지하거나 대안의 모색을 통하여 건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장휘숙, 2002),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Freund와 Baltes (2002)는 SOC 전략이 개인의 긍정적 정서나 주관적 안녕과 같은 성공적 인생관리의 주관적 지표들과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성격특성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NEO 성격검사(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를 사용하여 SOC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호감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SOC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목표에 전념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높은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전형적 특성인 성실성은 SOC의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을 뿐아니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신병리나 부적응에 해당하는 정서적 불안정성은 의도적 선택과 상실-기초된 선택 및 최적화와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보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인생관리 과정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가정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OC 전략이 개인의 애착양식이나 부모나 친구에 대한 애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이유는 애착이 SOC 전략과 동일하게 개인의 긍정적 정서나 주관적 안녕과 정적 상관이 있고 성격특성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Armsden과 Greenberg (1987)는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자기개념, 자기존중감, 및 인생만족과 정적으로 상관되고 우울이나 분노, 불안, 소외 혹은 죄책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Hazan과 Shaver (1987)도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우울과 불안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보고하였고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회피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향성 및 복종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3범주의 애착양식과 다섯가지 성격특성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Shaver와 Brennan (1992)는 다섯가지 성격특성 중 적어도 3-4개의 특성이 개인의 애착양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는가 하면, 4범주의 애착양식과 다섯가지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1a) 역시 안정형 애착과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호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보다 더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애착양식 뿐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도 개인의 성격특성과 높은 상관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그들의 성격에 대한 친구평정의 관련성을 연구한 Kerns와 Stevens (1996)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남자 대학생들의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성격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는 상관이 없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남학생들은 친구들로부터 덜 적대적이고 높은 통제수준과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성격특성들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타나냄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낮은 애착을 갖는 여학생들이 친구들에 의해 더 자아탄력적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장휘숙(2001a)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은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보다 자아탄력성을 포함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 Kerns와 Stevens(199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비록 Shaver와 Brennan (1992)의 연구나 Kerns와 Stevens(1996)의 연구 혹은 장휘숙(2001)의 연구가 각기 서로 다른 애착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조금씩 차이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애착과 개인의 성격특성간에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성격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SOC 전략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일찍이 Bowlby(1979)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구조화되고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하며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통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을 조직하고 괴로움에 대한 반응을 인도하는 규칙체계의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애착이란 낯선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호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타인에게 근접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므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개인의 대처양식을 결정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장휘숙, 2000; Kobak & Sceery, 1988). 더욱이 안정된 애착은 사회적 상호작용시에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큰 자신감을 갖고 당황함이 없이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도전과 요구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Greenberger & McLaughlin, 1998; Kobak 등, 1993; Kobak & Sceery, 1988),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더 효과적인 SOC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bak과 Sceery (1988)의 주장대로, 개인의 애착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정서조절의 기능을 하고 행동전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안정된 애착이나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보다 바람직한 SOC전략의 사용을 보장하고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개인의 애착양식은 물론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SOC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Baltes와 Baltes, Freund 그리고 Lang(1999)이 개발한 SOC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인의 SOC 전략을 측정하고 SOC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려고 한다. SOC 전략은 적응적 발달을 설명하는 일반모델이므로 인간 적응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인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혹은 자아탄력성과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lock과 Kremen(1996)의 주장대로, 개인의 자아체계가 잘 기능할 때 개인은 삶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타인에게 반응적이며 타인과의 관련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SOC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한 방법으로 이러한 세가지의 자기관련 구성개념들과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SOC 질문지가 네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애착과 SOC 전략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Shaver와 Brennan(1992)처럼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의 애착양식척도와 장휘숙(2001)이 사용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는 한편,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려고 한다. 청년후기의 대학생들에게 친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도 함께 고찰될 것이다. 더욱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Kerns와 Steverns (1996)는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질문지를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나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IPPA의 사

용은 세사람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정도와 SOC 전략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OC 질문지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인가?

연구문제 2: SOC 전략에서 애착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의 SOC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대상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 1, 2학년 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으므로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부재한 학생과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분석대상자는 604명(남학생: 295명, 여학생: 309명)이었다.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81세($SD=1.31$) 그리고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1.05세($SD=2.53$)였다. 검사는 2002년 가을학기에 심리학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 교수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검사실시시간은 약 35-40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애착척도

3범주 애착척도: Hazan과 Shaver (1987)가

제작한 단일문항의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Ainsworth 등(1978)이 분류한 애착양식에 기초하여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세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애착양식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4범주 애착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 (1991)가 제작한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각기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을 기초로 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그리고 거부적/회피형의 네가지 애착양식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정형 애착양식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인 반면, 두려워하는/회피형은 두 개의 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몰입형 애착양식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다. 응답자들은 네가지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고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양식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모 및 동년배 애착척도(IPPA):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가 사용되었다. 원래의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분리해서 측정해야 하므로 원래의 IPPA를 활용하여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 (1994)의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3인의 애착 인물에 대한 애착이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Cronbach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 .91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92였다.

SOC 질문지

Baltes와 Baltes, Freund 그리고 Lang (1999)이 개발한 48문항의 SOC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SOC 질문지는 의도적 선택(ES), 상실에 기초한 선택(LBS), 최적화(O) 그리고 보상(C)의 네가지 하위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은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들은 두 개의 진술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제선택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두사람의 허구의 개인 A와 B의 인생관리행동 중 어느 것이 자신을 더 잘 기술하는가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Baltes 등(1999)과 Stange, Freund 및 Baltes (2000)는 SOC 질문지의 강제선택 양식이 단일문항 양식보다 인생의 목적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을 뿐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의도적 선택에서의 높은 점수는 개인이 분명한 목표를 발달시키고, 개인의 자원을 집중할 제한된 수의 목표를 선택하며 목표의 중요성에 따라 목표위계를 구축하는 행동에 응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높은 상실에 기초한 선택 점수는 목표관련적 수단에

서의 상실에 직면한 개인이 가장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덜 중요한 목표를 포기함으로써 목표위계를 재구성하고 상실이 일어나기 이전의 목표수준이나 목표위계를 유지하기 보다 포부수준을 조절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최적화 점수는 개인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술을 획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투자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며 보상에 대한 높은 점수는 수단의 상실이나 감소에 직면하여 대안적 혹은 대리적 수단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지지하거나 선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SOC 점수는 이와같은 네가지 하위점수로 계산될 수 있고 전체점수로 합산될 수도 있다.

자기존중감 검사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전체적 자기존중감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범위하는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로 확인된 검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0이었다.

자기효능감 검사

Sherer와 그 동료들(1982)의 자기효능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17개 문항의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와 6개 문항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두가지 하위점수로 계산될 수도 있고 전체점수로 합산될 수도 있다. 이 검사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학구적/직업적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로 측정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학구적/직업적 하위척도 .88 그리고 사회적 하위척도 .79였다.

자아탄력성 검사

Block과 Kremen(1996)에 의해 개발된 자아탄력성 검사는 전체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불안에 민감하지 않고 긍정적 정서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Block과 Kremen은 18세와 23세 집단의 Cronbach 계수는 .76이라고 보고하였으며 5년간에 걸친 두 차례의 평정에서의 점수 상관은 여성에서 .51 그리고 남성에서 .39라고 보고하고 성격이 확립된 이후의 성인기 동안에는 동일한 시간간격 동안에도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3이었다.

SOC 질문지의 타당성 검증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기 전에

SOC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요인들의 상호상관을 계산하고 Cronbach 로서 내적 일관성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SOC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감,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상관을 계산함으로써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요인들의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은 $r=0.46$ ($p<.001$), 의도적 선택과 최적화는 $r=0.54$ ($p<.001$), 의도적 선택과 보상은 $r=0.26$ ($p<.001$),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최적화는 $r=0.47$ ($p<.001$),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보상은 $r=0.41$ ($p<.001$) 그리고 최적화와 보상은 $r=0.53$ ($p<.001$)로서 모든 요인들간에 유의한 상호상관값을 얻을 수 있어 Baltes 등(1999)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Cronbach 로서 내적 일관성계수를 계산한 결과 의도적 선택 .80, 상실에 기초한 선택 .68, 최적화 .76 그리고 보상 .74였으며, SOC 질문지가 두가지 진술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제선택양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SOC 질문지의 준거관련 타당도로서 SOC의 네가지 하위요인들과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제외하고,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모든 자기관련 개념들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의도적 선택,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SOC 전략이 적응적 발달을 설명하는 일반모델이므로 성공적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인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과 일치함으로써 SOC 질문지는 준거관련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척도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SOC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LISREL 8.0판을 사용하여 SOC 질문지가 네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

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카이제곱 검증통계치는 $\chi^2=31.55$, $df=2$, $p<.000$ 이었고, 기초부합도 지수(GFI)는 .96, 수정부합도 지수(AGFI) .82, 표준부합도 지수(NFI) 0.92, 원소 평균자승잔차값(RMR)은 0.05였다. 이러한 통계치들은 SOC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

한 Freund와 Baltes(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SOC 질문지가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성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척도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3범주 및 4범주의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두가지 유형의 애착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3범주의 애착양식을 그리고 표 3은 4범주의 애착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도 F값과 함께 제시하였다.

표 2는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3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후분석으로 Duncan

표 1. SOC 하위요인들의 준거관련타당도 분석결과

구분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의도적 선택	0.24775***	0.10314**	0.43965***	0.08963*
상실-기초된 선택	0.20523***	0.05012	0.32317***	0.11916**
최적화	0.33715***	0.20381***	0.58763***	0.26029***
보상	0.25994***	0.13270**	0.34256***	0.29031***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표 2. 애착의 3범주에 따른 SOC 질문지의 하위요인들(괄호안은 표준편차)

구분	안정된 애착	회피적 애착	불안/양가적 애착	F값	사후검증
의도적 선택	19.06(3.17)	18.78(3.14)	18.06(3.87)	2.66*	1-3
상실-기초된 선택	21.36(2.20)	20.90(2.68)	20.55(2.61)	4.24*	1-3
최적화	20.44(2.72)	19.69(3.19)	18.96(3.11)	8.94***	1-2, 1-3
보상	21.44(2.29)	20.15(2.89)	20.07(2.89)	17.50***	1-2, 1-3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SOC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최적화와 보상요인에서는 회피적 애착양식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가장 적응적 집단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개의 불안정한 애착집단인 회피적 애착양식집단과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집단간에는 어느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

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더 바람직한 SOC 전략을 사용하고 가장 적응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범주의 애착양식과 유사하게 4범주의 애착양식에서도 표 3과 같이 네가지 애착양식에 따라 SOC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애착양식집단이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집단보다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최적화(O)와 보상(C)요인에서는 몰입형 애착양식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을 갖는 안정형 애착양식집단이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집단이나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갖는 몰입형 애착집단보다 SOC 하위요인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 개의 불안정한 애착양식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3범주의 애착양식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SOC

어머니,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표4와 같이 3인의 인물에 대한 애착과 SOC 질문지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3. 애착의 4범주에 따른 SOC 질문지의 하위요인들(괄호안은 표준편차)

구분	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 회피형	거부적/ 회피형	F값	사후검증
의도적 선택	19.16(3.08)	18.54(3.44)	18.15(3.22)	19.21(3.83)	2.55*	1-3
상실-기초된 선택	21.38(2.19)	21.14(2.28)	20.71(2.80)	20.45(2.91)	3.24*	1-3
최적화	20.55(2.75)	19.60(2.97)	19.22(3.07)	19.90(3.18)	6.05***	1-2, 1-3
보상	21.57(2.13)	20.74(2.50)	19.78(3.05)	19.70(3.41)	16.11***	1-2, 1-3

표 4.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SOC 하위요인들간의 상관

구분	어머니 애착	아버지 애착	친구 애착
의도적 선택	0.213***	0.167***	0.063
상실-기초된 선택	0.130***	0.126***	0.083*
최적화	0.257***	0.286***	0.106***
보상	0.261***	0.261***	0.255***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의도적 선택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하위요인 즉,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 친구도 대학생들의 SOC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SOC의 네가지 하위요인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3인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0.181, p<.001$)과 상실-기초된 선택($=0.091, p<.05$)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화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0.154, p<.001$)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0.214, p<.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보상의 경우에는 어머

니($=0.131, p<.001$), 아버지($=0.139, p<.001$) 그리고 친구($=0.16, p<.001$)에 대한 애착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어 SOC 하위요인에 따라 애착인물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들 즉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아버지는 최적화와 보상요인에만 그리고 친구는 단지 보상요인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서 어머니가 대학생들의 SOC 전략의 사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SOC관계를 그림 1과 같은 모델로 가정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그림에서 애착이라는 이론변인에 대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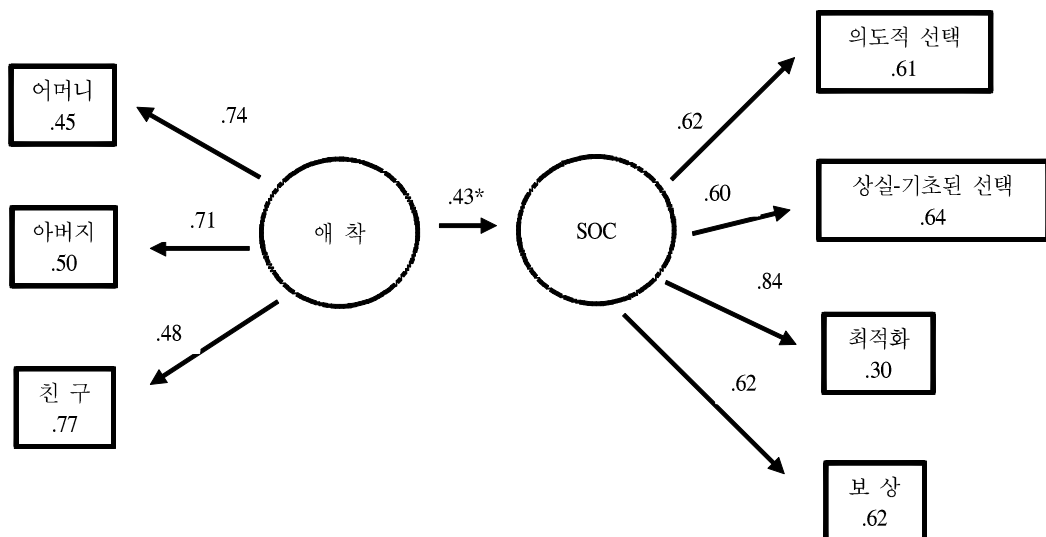


그림 1.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

착이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었고, SOC라는 이론변인을 위해서는 의도적 선택, 상실-기초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해주는 카이제곱 검정통계치는 $\chi^2=92.62$, $df=13$, $p<.000$ 이었으나 이 통계치는 표본의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합도 지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기초부합도 지수(GFI)는 .94, 수정부합도 지수(AGFI) .92, 표준부합도 지수(NFI) .91, 비표준부합도 지수(NNFI) .88 그리고 원소평균자승잔차값(RMR)은 0.05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낮선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므로 보다 건설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SOC 전략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애착이 SOC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 연구의 이론적 가정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SOC 전략을 측정하는 질문지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양식 척도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의 애착양식 척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IPPA(Paterson 등, 1994)가 애착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SOC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Baltes 등(1999)이 개발한 SOC 질문지가 사용되었고 SOC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기존중감 검사, 자기효능감 검사 및 자아탄력성 검사도 함께 사용되었다.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상관은 물론 신뢰도로서 내적일관성 계수와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SOC 질문지는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인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3범주 및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대학생들의 SOC 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안정된 애착양식집단은 불안정한 애착양식집단보다 SOC 질문지의 네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얻어 보다 바람직한 SOC 전략을 사용하는 적응적 집단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네가지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회귀분석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네가지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최적화와 보상요인에만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보상요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어 어머니는 대학생들의 SOC 전략에도 상대적 영향력이 큰 애착인물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애착이 SOC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의 가정이 경험적으로 지지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강제선택양식의 SOC 질문지를 사용한 것은 Baltes 등(1999)과 Stange, Freund 및 Baltes(2000)가 강제선택양식이 단일문항양식보다 인생의 목적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더 낮은 상관을

이론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Baltes 등(1999)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SOC 질문지의 하위요인들 사이에 유의한 상호상관이 존재하고 적절한 내적 일관성계수와 자기관련 구성개념들인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Freund와 Baltes(2002)와 동일하게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타당한 척도라고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자아탄력성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장휘숙, 2001b) 목표관련적 수단을 상실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나타난 상관의 부재는 10대부터 80대까지의 개인들을 연구한 Freund와 Baltes(2002)처럼 상이한 연령층을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 집단은 불안정한 애착집단보다 SOC 질문지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가장 적응적인 집단임을 나타내었으나 불안정한 애착집단간에는 SOC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가정한 모델이 확인됨으로써

애착이 SOC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갖는 자기효능감이 SOC 전략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와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Bandura(1996)의 주장이나 이 연구에 나타난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과 SOC 전략간의 유의한 상관은 물론 개인의 성격특성과 SOC 전략간의 관계(Freund & Baltes, 2002)를 감안할 때, 애착은 물론 SOC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SOC 전략과 관련된 중다의 변인들을 확인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어머니는 대학생들의 SOC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애착인물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최적화와 보상 요인에 영향을 주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보상요인에만 영향을 주는 데 반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SOC 질문지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며 특히 인생의 목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애착인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일생 동안 개인의 안전기지로서 기능하고 낮선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일 뿐아니라(장휘숙, 2000; Greenberger & McLaughlin, 1998)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1a)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청년후기 동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는 대학생들의 SOC 전략의 사용에 각기 상이한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연령증가와 함께 개인이 사용하는 목표선택과 목표추구 및 목표유지/변경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SOC 전략은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그리고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발달적 조절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SOC 전략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법외에도 Lindenberger 등(2000)의 연구에서처럼 생각하기와 건기의 이중과제 패러다임과 같은 행동적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인생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전생애 동안 선택, 최적화 그리고 보상의 발달적 조절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음은 물론 SOC 전략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I):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연구*, Vol. 13, No. 3, 141-157.

장휘숙(2001a).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인성교육연구*, 14 2, 105-120.

장휘숙(2001b).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인성교육연구*, 14 1, 113-

128.

장휘숙(2002). 전생애 발달심리학과 SOC 이론(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SOC theory). 2002년도 *인성교육연구*, 210-215.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3.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ltes, P. B., Baltes, M. M., Freund, A. M., & Lang, F. R. (1999). The measure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SOC) by self-report(Tech. Rep. 1999). Berli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Bandura, A. (1996).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49-361.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Tavistock, New York.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Freund, A. M., & Baltes, P. B. (2002). Life-management strategies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Measurement by self-report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4, 642-662.
- Greenberger, E., & McLaughlin, C. S. (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2, 121-139.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No. 3, 323-342.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 231-245.
- Kobak, R. R.,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rner, R. M., Freund, A. M., De Stefanis, I., & Habermas, T. (2001). The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model as a frame for understanding developmental regulation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44, 29-50.
- Lindenberger, U., Marsiske, M., & Baltes, P. B. (2000). Memorizing while walking: Increase in dual-task costs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15, 417-436.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8, No. 5, 536-545.
- Sherer, M., &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ange, A., Freund, A. M., & Baltes, P. B. (2000). *To SOC or not to SOC: Two studies investigating a questionnaire measuring processes of adaptive develop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42nd congress of the German Society of Psychology, Jena, Germany.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3. Vol. 16, No. 3, 1-??

Attachment and SOC strategie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SOC strategies. College students(N=604) completed questionnaires measuring attachment styles an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three self-related constructs and SOC strategies. SOC questionnaire made by Baltes et al. (1999) had adequate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As results, attachment sty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four SOC components and attachments to mother, father and peer were differently related to SOC components. Interestingly mother was the most influential attachment figure on college students' SOC strategies among three attachment ones.

Keywords: attachment, SOC strategy, attachment figure, SOC component